



3면  
"올해, 공공의대법 통과 총력"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1월 3일 화요일 (음 12월 12일) 제317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2023 계묘년 시무식이 2일 전북도청 대공연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 청원들이 2023년 '아태 마스터스 대회'와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전북도, 2023 계묘년 시무식

### '올 한해, 변화 넘어 성장'

새해 전북도 비전·도정방향 공유, 새 출발 다짐  
김 지사, 신년사 통해 "사명감 갖고 도정 수행을"  
아-태 마스터스·새만금잼버리 성공 퍼포먼스도

전북도는 2일 도청 대공연장에서 전 청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계묘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새해 도의 비전과 도정방향을 공유하고 희망찬 새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한 시무식은 도민들의 기대와 바램이 담긴 '도민 희망메시지'를 시작으로, 김관영 도지사의 신년사와 2023년 아태 마스터스 대회,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을 몸소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 한 해, 변화를 넘어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열심히 뛰는 만큼 지역이 나아간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도정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의 사자성어인 '도전경성'의 정신을 바탕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해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올 중기육성자금 융자 지원

도, '고물가·저금리·고환율'에 대응... 2200억원 규모  
설·추석 명절 앞두고 특별자금 각 100억원씩 지원키로

전북도가 올해 불경기 상환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대응해 2023년 도에 2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결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300억 증액된 규모다.  
자금별 융자 지원규모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900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150억원 △경영안정자금 1,150억원으로 총 2200억원 규모이고, 전북도가 대출이자 2~3%를 지원하여 기업이 납부해야 할 이자 부담을 최소화했다.  
우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운영자금)의 융자 지원한도는 최대 16억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3.78%에 이차보전 2.18%로 기업에서는 1.6%를 부담한다.  
벤처기업 육성자금(시설·운영자금)의 융자 지원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3.78%에 이차보전 3.18%로 기업에서는 0.6%를 부담하는

최저 금리의 자금이다.  
마지막으로 경영안정자금(운영자금)의 융자 지원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금리는 기업별로 상이한 시중은행 변동금리로 이차보전 2%~3%로 기업은 도 이자 지원을 제외한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 고금리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 보전금을 155억원 확보하고 기업부담 금리도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또한, 설·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도 및 시군에서 지원받은 운영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설·추석 명절 특별자금을 각 100억원씩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현재 3고의 상황에 힘들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어느때보다 자금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올해 전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이 자금난 해소와 유동성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도는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 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거처기간 연장을 신청할 기업은 전북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http://fund.jbta.kr>)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 또는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063-711-2021~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 올해 도교육청 농촌유학사업 '각양각색'

김제 벽랑초 '도자기 만들기 체험' 등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활동 마련

서거석 교육감이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교육청 농촌유학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 실시된 농촌유학사업이 지난해 참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올해 확대 실시한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찾아오는 학교 교육'을 통한 '귀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023 전북교육청 농촌유학은 재학생과 유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을 높이고 나아가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전북지역의 인구 급감에 대비해 농산어촌 학교 활성화 및 지역 경제활동 가능 인구 유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2023년 전북농촌유학 협력학교로 22개교를 모집 지역별로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마련했다.  
먼저, 정읍시에서는 영원초가 역사문화학교로 동학혁명 기념관을,

생태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계절별 내장산 숲 체험을 각각 운영한다. 옥동초는 힐링 숲 프로젝트로 내장산 국립공원 관리공단 연계 내장산 생태탐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평초는 내장산 숲놀이 체험으로 숲루프 놀이와 생태도감 만들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제 벽랑초에서는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 아리랑 문화마을, 전북무형문화제 2호 사기장과 함께 도자기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이어 완주군에서는 운주초에서 모악산 숲 체험을 운주중학교에서는 대둔산 생태탐방교육이 있다.  
진안 조림초에서는 가족참여 프로그램으로 진안고원 치유숲과 연계한 생태체험놀이터와 흙놀이 등이 진행된다.  
또 무주 적상초는 1~2학년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 기르기 일환으로 군 지원 태권도 교육이 실시된다.  
장수 산서초에서는 문화예술 감성교육으로 주 1회 전문강사와 함께 하는 무용 및 논개가 판소리 수업

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으로 임실군에서는 지사초가 '저울 쥐어 사골 쥐어 치즈 공방전'이란 제목으로 치즈메카파크와 산물에 식품을 연계한 연중 치즈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청송초는 섬진강을 활용한 기후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가장 많은 6개 협력학교가 있는 순창군에서는 시산초가 잠빛갈 어울림교육으로 마을탐방 지전거길을 '휴먼재'를 활용한 효예절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삼치초는 순창장류 발효과학프로그램을, 적성초는 섬진강을 활용한 자연친화 생태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창 동호초에서는 마을 교육과정으로 개별체험, 곤충학교 등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완주 동상초 무주 무풍초 임실 대리초 순창 인계초팔덕초·동산초 부안 영진초 등도 2023년 전북농촌유학 협력학교로 특색있는 체험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더 높이 도약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로  
장수군이 하나로 화합해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를 만들겠습니다

장수군